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강경림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 FAX/ 031)257-1083 • http://www.paragate.org • E-mail : budsos@paragate.org

백신에게 듣는다<서촌네번째>

지묵스님 초청 신년법회

- 주제 : 성도의 의미
- 일시 : 불기2550(2006)년 1월 21일(토) 15시
- 장소 :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

[지묵스님 약력]

- ▶ 조계산 송광사에서 법흥(法興)화상을 은사로 출가
- ▶ 전 길상사 교무, 전 법련사 한주
- ▶ 전 불교방송 신행상담 프로 진행
- ▶ 현 불교방송 <지금은 수행시대> 출연
- ▶ 현 수원 칠보산 <아란야 선원> 선원장
- ▶ 저서
<나마스떼> <봉주르 길상입니다> <육조단경강설> 외 다수



1월 사찰환경 답사

[법주사, 용화사, 관음사]

- 일 시 : 2006년 1월 15일(일요일)
- 출발지 : 오전 7시 30분 - 경기불교문화원앞
- 동참금 : 3만원
(중식비/간식/여행자보험/사찰입장료포함)

신년 초



신년사

불기 2550년 새아침을 열며

우양 금당 진철희/ 경기불교원장



팔달산의 서기어린 빛으로 병술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먼저 경기불교문화원의 가족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여 금년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본원의 힘찬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불교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을유년은 다사다난이란 용어가 걸맞은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동남아시아에 발생한 쓰나미와 미국 뉴올리언스의 대해일, 파키스탄을 초토화시킨 지진, 우리나라 호남지방을 덮어버린 대폭설 등. 지구 전체에서 크고 작은 대재앙이 발생하여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처님은 연기법에서 “인간(正報)과 자연(依報)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큰 생명체”라고 하는 의정불이설(依正不二設)을 밝히셨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야 할 공존 공생의 유기적 생명공동체이므로 자연이 우리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분출되면서 이해와 타협은 찾아보기 힘들며, “그때그때 다른 정책과 이야기” 같은 코미디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경기불교문화원 가족 여러분!

경기불교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날로 도약하고 있는 경기불교문화원은 김태제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은 금년도 삶의 투지와 의욕을 잃은 40~50대 실직자정과 청년 실업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법회를 통해 웃음과 희망이 되살아나도록 하여 신명나는 포교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1700년 동안 면면히 흘러온 한국 불교가 세계화를 이루도록 세계 곳곳에 수행하는 불자들의 수행처를 순례하여, 부처님의 삶의 지혜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느끼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불교문화원 가족 여러분!

흔히들 불교는 어렵다고 합니다. 불교를 알고 싶어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장소와 사람이 없어 눈동냥, 귀동냥으로 이 절 저 절에 기웃거리다가 “나도 불자입니다”라고 옆 사람에게 말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머뭇거리기만 하고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불교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는 종교이며, 그 이해가 본바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관념의 불교가 아니라, 실천의 불교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불교문화원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바로 올바르게 불교를 이해하며 자기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불교를 보급하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병술년 개띠 해에 용기와 충직함, 의리가 있는 토종개처럼 우리의 서원이 불자님들의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경기 불교**

부처님 말씀(7)

자각은 영원의 길이며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

- 법구경 21 -

Mindfulness is the way to the Deathless, unmindfulness is the way to Death. Those who are mindful do not die; those who are not mindful are as if already dead.

- The DhammaPada 21 -

한방갈비 전문점 고향숯불갈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전국 꽃배달 전문. 세류 꽃 직매장

대표 : 이 태 호

전화 : 031-224-2221. 235-9293

Fax : 031-224-2232

새 해 병술을 맞이하면서...

보현진열/감료향사 분향주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시간의 흐름에 매우 민감해졌다. 그것도 서력(西曆)에 의해 생활과 일체 행동 양식까지 규제받는 지경에 이른 지 이미 오래됐다. 모든 것을 달력의 구분과 제한에 따라 나라나 개인이 무슨 약속이라도 하는 듯 행사를 거행하곤 한다. 지금 서력 사용은 서양 중세에 발전된 그레고리 교황 역법의 확장이다. 예수 탄생을 원년으로 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담긴 시간의 흐름과 구분에 맞추어 만들어진 캘린더다. 그렇더라도 예수 탄생이 4년으로 돼 있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세계의 모든 기록과 연대표는 쓰이고 비준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비록 자기 나라 나름의 전통에 의한 캘린더가 있을지라도 워낙 세계적 표준 연대표가 돼버린 서력을 병기해 놓을 수밖에 없는 시대다.

우리 불교권에서만도 단기(檀紀)와 불기(佛紀)와 서기(西紀)가 한꺼번에 병기돼 내려온다. 단기는 우리나라 전통과 고유성의 긍지를 유지하려고 쓰고 있으며, 불기는 모든 불자들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며, 서기는 일상 생활상에서 편리하기에 쓰는 것이다. 단기는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해를 기준한 것으로 현재 서기에 2333년을 보탠 것이 현재 단기니, 곧 올해는 $2006+2333=4339$ 년이 되는 셈이다. 불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년을 기준한 것이니, 이설(異說)이 많지만 곧 $544+2006=2550$ 년이 된다. 서기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탄생 년을 원년으로 삼아 계산해 나온 것이다.

이밖에 세계에는 민족마다 종교마다 정치적 관계에서 제정된 캘린더도 참 많다. 이렇게 많은 달력은 우리가 잠시도 시각의 규제와 제한을 벗어나 살 수 없을 말해 준다. 과거에는 왕이나 위정자들이 국민을 원활하게 지배하고 교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습관화하면서 이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각 규범에 따라 움직이도록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서력상 1월 1일의 해돋이는 정신 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도록 하고 있다.

옛그제 신정(新正) 때 해맞이한다며 곳곳에서 산을 오르고 해변을 찾아 분산이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다. 해돋이를 맞이하는 일종의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 해 1년의 운수는 망치는 것쯤으로 무의식 중 믿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대단한 연중행사에 속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1년의 시작과 끝은 입춘에서 다음 해 입춘까지다. 입춘은 대략 양력 2월 4일이다. 입춘부터 새 해가 시작하며 모든 운수나 인생의 길흉화복의 작용이 영위된다. 굳이 해맞이를 하려 한다면 신정 보다는 입춘에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입춘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정의 중요함은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우리가 벌써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대체한 서구인이라는 것을 말한다. 비록 한국인이고 아시아의 황인종이지만, 의식과 문화를 규정하고 표현하는 형식은 이미 서구적이라는 데에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다. 머리를 억지로 누렇게 물들이고 얼굴을 하얗게 페인팅 하는 것들이다. 서구를 선망(羨望)한 나머지 자기 변신을 넘어 탈바꿈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서력(西曆)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을 규제하고 의도한 대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싫든 좋든 누구나 이런 대세에 이끌려 가고 있다.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정신은 퇴색하기 쉬워진다. 무슨 보호 문화재라며 제도적으로 보존하려고 하지만, 지금 미국 주도의 엄청난 세계화 물결에 얼마나 건널지 궁금해진다. 부익부 빈익빈 되는 양극화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약자는 죽어가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에 내던져진 신세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불자라면 그 세계화의 망령에 혼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시간으로 현재란 뭔가 어디서 어디까지 현재인가? 그 현재를 쪼개고 쪼개고 그 현재는 있지 않고 오로지 공(空)에 가까울 뿐이다. 현재도 그러할진대 과거나 미래의 그 어느 시점도 공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일체개공(一切皆空)이라 했다. 또한 진공묘유(真空妙有)라 했다. 일체개공에 묘유라면, 차라리 신정의 그 해돋이 보다는 입춘의 해돋이 맞이 행사의 의식이 더 의미 있을 게 아닌가?!

한국인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좋지만, 불자는 이를 확실히 알고 몸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신정 보다 동지(冬至) 행사가 더 중요하다.

입춘부터 인생사 화복이 영위되지만, 동지부터 새로 한 해가 시작하기 때문이다.

역법으로 볼 때 신정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음력 1월 1일 설이 더 의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가 온 힘을 다해 정동진에 달려가며 여명에 광고산에 오르는 것은 단순한 등산이나 운동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종교 철학적인 혼동에 연유한 것이다. 앞으로 병술(丙戌) 개띠 해가 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았다. 우리 민족의 설도 다가온다. 부디 새 해에는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의 가정과 일에 부처님의 가호하심을 축원한다.

경이
불교



가바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사다리
031)297-2000 / 011-733-1985

검로보석

대표 : 이재익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4-1(선일프라자 107호)
TEL : 031)255-9484 H.P : 017-312-9484

우연에 기대를 걸지 말라

무진장 스님



경기불교문화원에서 금년을 마감하는 뜻 깊은 송년 법회에서 법문을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먼저 부처님시대 순타 장자의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순타 장자는 불교를 신봉하지 않은 사람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동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 와 보니 막상 대접할 것이 버섯밖에 없어서 버섯을 요리하여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드시고 피를 토하셨습니다. 순타 장자가 놀라서 부처님께 여쭙어 보니 부처님께서 “이 버섯은 귀신이 먹어도 죽는 독버섯인데 내가 먹고 피를 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이 이상스러울 것이 있겠는가? 근심하지 말라.” 부처님은 순타 장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순타 장자는 걱정이 되어 부처님께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까지 2달 동안 함께 여행을 하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 순타 장자는 부처님께 “부처님 교단은 비대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하여야 부처님의 뜻을 널리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쭙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불교를 믿는 이는 마땅히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느니라. 불자들은 우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불교를 믿으면 우연히 행복해지겠지. 우연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기대를 걸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이지 노력 없이 운명적으로 불교를 믿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는 금물인 것입니다. 전등록에는 “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흙덩이를 던지면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지만 개는 흙덩이를 쫓아간

다. ”란 글이 있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다른 점은 바로 이점에 있습니다. 사자는 부처님을 상징하고 개는 어리석은 중생을 비유한 것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라 하여 순전히 불교 경전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유익한 것들은 두루 읽어서 많은 책을 섭렵하여야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만이 최고다 싶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만을 최고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교만을 최고로 보는 사람은 진정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주스님은 “진흙 부처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목불(木佛)은 불을 가까이하지 못하며, 금동부처는 용광로를 지나지 못한다. 이 삼불(소조불, 목불, 금동불)이 부처가 아니라 참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줄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심성 가운데 참 부처가 있다.” 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튼 수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혜종고 선사 어록에 보면 “예리한 비수 끝에 묻은 꿀은 혀끝을 상하게 하고, 비상(砒霜)을 만드는 집에서는 물맛을 보지 말라. 활지를 말고 맛보지를 말아야 금의환향 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비수 끝에 묻은 꿀을 훔다가 교도소에 간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니며, 비상 집에서 물맛을 보다가 죽은 사람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지혜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믿으면 막연하게 행복해 지거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종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지혜를 숭상하는 종교이지 믿으면 아파트가 생긴다거나, 믿으면 복되게 산다거나 그런 썩어빠진 배부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경제적 욕망과 함께하면 그 종교는 망할 것입니다. 가령, 사찰에서 부처님과 가까운 등은 비싸고, 부처님과 멀리 떨어져 달아둔 등은 상대적으로 싸다면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이 불교입니까? 불교는 차등을 없애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인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무슨 꽃이 피었고, 돌 거북이를 가지고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거나, 탑 밑의 개구리를 보면 재수가 좋다거나, 어디 문고리를 잡으면 등등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절에 가면 극락이고 집에 오면 지옥이면 그것이 어떻게 불교입니까? 이러한 이상스런 사고방식을 불자들은 버려야 합니다. 틱낫한 스님이 “한국 불교가 사는 법은 이러한 신비주의를 버려야 한다.” 고 말하셨습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 불자님들은 이곳 경기불교문화원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실생활에 맞는 좋은 공부를 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절대 우연에 기대를 걸지 말고 불교의 외형적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불교는 일반 타 종교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불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얼마만큼 지혜로워야 하는가? 부처님의 판단력만큼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생활하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력은 절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자들은 어디를 가나 이러한 생명력 있는 종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법문은 12월 백고좌 법회를 편집한 것입니다. 편집자)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달빌딩 3층

다도 교육생 모집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기초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기초반/중급반)
- 지도강사 - 홍인숙



목탁소리

큰 검은 개 이야기

권 중 서 (조계종 포교사)



올 해는 열두 동물 중 개의 해(丙戌年)

로 대방등대집경에는 12수(獸)란 남염부주에 살고 있는 12종의 짐승으로 이들은 각각 보살의 화신으로 인계와 천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교화 한다고 하였다. 개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한다. 주인을 위한 충성심 또한 단연 동물 중의 으뜸이기도 하다. 또한 불자들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날 동물로 생각하기도 하여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한다.

병술년 새해 불교의 4대 명절의 하나인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성도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부처님의 전생 담인 큰 검은 개 이야기를 거울로 삼아 열심히 수행 정진토록하자.

이 이야기는 본생경 12편 큰 검은 개의 전생이야기로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 세상을 위한 이로운 행위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앉아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고 있었다. 부처님은 찬탄의 말씀을 들으시고 “비구들이여 내가 최상의 진리를 깨달아 이 세상을 이익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전생에 있어서는 애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조차 나는 세상을 위해 이로운 행동을 했다.” 하시고 그 전생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옛날 우시나라 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섭불께서 열반에 드신 뒤 오랫동안 불법이 쇠퇴해 갔다. 비구들은 21종의 불상응법(不相應法)에 의한 생활을 경영하고 비구니들과 접촉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 우파아사가, 우파아사카 그리고 브라흐만들은 각자 그들의 법을 따라 지키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종의 불선법(不善法)으로 나아가 죽은 뒤에는 악취(惡趣)에 떨어졌다. 그때에 모든 신들의 왕인 제석은 사람들이 악취에 떨어져 있는 것과 또 불법(佛法) 쇠퇴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 까 생각하되 ‘먼저 저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한 뒤에 그들을 안심시켜 법을 설명하여 쇠퇴한 불법을 다시 일으켜 천년동안 행해질 터전을 만들자’ 고 결심하여 이에 마타리 신(神)을 말(馬)만한 크기와 희고 큰 4개의 이빨은 사방으로 광명을 놓는 검은 색깔의 무서운 개로 변하게 하였으며 제석 또한 몸에는 두벌의 가사를 입고 머리는 뒤로 묶어 붉은 화환으로 장식한 뒤 큰 화살을 들고 끝에 금강저(金剛杵)가 붙은 창을 손톱으로 돌리면서 완전히 사냥꾼 모양으로 변장해 다섯줄로 맨 큰 검은 개의 줄을 잡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세상은 멸망한다. 세상은 멸망한다.’ 고 세 번을 외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다. 개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왕궁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개는 왕궁의 문기둥에 올라가 큰 소리로 짖었다. 그 소리는 밑으로는 무간 지옥에, 위로는 높은 천상 세계에 까지 울려 온 세계는 하나의 울림이 되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제석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왕은 용기를 내어 창을 열고 제석에게 말하였다. ‘오오 사냥꾼이여 어찌하여 네 개가 짖는가? 배가 고파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먹이를 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해 준비해둔 요리를 전부 주었으나 한 입으로 다 먹어버리고 또 짖어댔다. 왕은 성 안의 모든 음식을 갖다 주었으나 또 다 먹어버렸다. 왕은 ‘이것은 개가 아니요, 분명 야차다. 그가 온 까닭을 물어보니 제석이 말하길 ‘우시나라왕이여, 이 개는 짐승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없애기 위해 그 때, 이 검은 개는 풀려지리라. 불법(不法)을 좋아하고 부정(不正)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 윗입술 튀어나고 양치질 않고 더러운 머리에는 소라상투 튼 돈벌이의 이익을 얻어 사리는 자, 오직 보수를 바라 제식(祭式)을 행하는 자, 머리를 깎고 고행(苦行)을 하는 채하며 오욕에(五欲) 물들리어 행세하는 자, 재물을 가졌으면서도 늙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미련하다 학대하는 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며 남의 잘못만을 생각하는 자. 그 때에 이 검은 개는 풀려지리라.’ 보살은 이렇게 노래한 뒤 사냥꾼의 모습을 버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며 공중에 서서 ‘대왕이여 나는 모든 신의 왕인 제석이다. 이 세상이 멸망할까 두려워서 여기 온 것이다.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악취에 떨어 졌다. 그래서 신의 세계는 완전히 비어 버렸다. 부디 게을리 말라.’ 훈계한 후 보시의 공덕을 칭찬하고, 쇠한 佛法이 다시 천년 동안 행해지도록 한 뒤에 마타리 신과 함께 천상으로 돌아갔다.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신 뒤 다시 전생과 금생을 결부시켜 ‘그때의 마리타는 저 야난다요, 그 제석은 나였다’ 고 하셨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신 이때에 요즈음 우리의 모습이 그 옛날처럼 10선을 행하지 않고 不善法으로 나아가며, 모든 일의 승리자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아서 언젠가 내 목덜미를 물어 악취에 떨어뜨릴지도 모를 검은 큰 개 마리타에게 물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고삐를 죄어 十善을 행하는 한 해로 새해의 발원을 하자.

경기 불교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031)241-1004 / 원장실 031)248-1616

수원시 팔달구 지동 427번지

금강경 강좌안내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월3일 개강)
- 내용 : 금강경 • 기간 : 4개월 과정
- 수강료 : 120,000원
- 강사 : 가섭스님



수덕사, 추사고택, 고건축 박물관, 천장암 순례기

용주사 청년회 효행 박물관 봉사자/사찰답사단원 민미향

높고 높은 푸르름과 하얀 눈 사이로 서 있는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서해를 향해 차령산맥의 낙맥이 만들어낸 덕숭산은 북으로는 가야산, 서로는 오서산, 동남간에는 용봉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중심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덕숭산에 자리한 백제의 고찰로 조계종 7교구본사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554-597년)대에 지명스님에 의해 창건, 수도 사비성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칠막사, 사자사, 미륵사 등 12개 사찰이 전해지지만, 현재까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수덕사 뿐이라고 합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보 49호이며, 정면 3칸 측면 4칸의 주심포 맞배 지붕 건물로써 1937년~1940년에 해체수리하면서, 고려 충렬왕 34년 건립 목서명이 발견되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 양식을 모방한 삼층석탑, 수덕사에서 출토된 고려자기 와당 등 여러 유물이 남아 있어서 대가람으로서 융성하였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년이 지나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백송나무와 추사 김정희님의 자택은 나무의 생명력처럼 길고 긴 인연이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송의 늠름함을 뒤로 하여 찾아간 화암사에서 따뜻한 차 한잔에 추위에 얼었던 손과 발이 녹아버리는 시간이 되었고,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볼 수 있는 고건축 박물관으로 향하였습니다. 고건축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은 국보와 보물로 된 문화재를 실제모형 1/10과 1/15로 축소제작 되었으며, 우리 고 건축에 사용된 연장(공구)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통건축과 동양건축 전시하여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건축에 담겨진 뜻깊은 의미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어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 건축에 대해 애착과 전수 의욕을 가지고 전통에 맥을 잇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올라가 만난 천장암에서 주지스님의 법문에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뜻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경허스님의 뜻을 깊이깊이 생각하여 자비와 지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문화를 알리고 함께 찾아가며 초심을 잃지 않으며, 알찬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경교불교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단월드 강사 백종복

병술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도록 내가 정말 원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내가 불교 문화원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두해가 훨씬 지났습니다. 단전호흡 강사로서 활동을 하게 돼서 인연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단전호흡이란 기체조와 뇌호흡 그리고 단학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체조는 맨손으로 하는 운동으로 기와 혈이 잘 흐르도록 머리끝(백회)에서 발끝(용천)에 이르기까지 늘리고, 비틀고, 두드려서 경락과 경혈 몸 안에 장기들을 자극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길러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고, 뇌호흡은 뇌의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산소를 풍부하게 공급하여 뇌가 운동(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단학활공이란 약손이란 의미로도 말하며, 맛사지, 안마, 지압등을 맨손으로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이란 한마디로 기체조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치 않으며, 맨손으로 하는 운동으로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기와 혈이 잘 흐르며 몸에 탄력과 유연성이 생기며, 몸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호흡이 편해져서 숨이 차지 않고, 자연 치유와 함께 예방에 더 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단학운동을 사랑하고, 여러 사람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단시간 내에 몸이 좋아진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끈기를 갖고 열심히 하여야 되겠지요. 시간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와서 무얼 하나 또는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길이라 한답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하루에 두 번의 새벽이 올 수가 없고, 순간은 거듭 오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한번밖에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한번밖에 살아 갈 수 없는 인생일진대, 우리는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야겠지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내 주위의 가족과 친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살기위해, 열심히 내 능력껏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도록 두손을 번쩍 들어 하나, 둘, 셋 힘껏 외쳐보세요. 기분이 훨씬 좋아지지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우리 몸이 조금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순서도 격식도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한 얼굴로 쟁그리지 마시고 단전호흡(배꼽주위)을 열심히 두드리고 기지개도 활짝 펴고, 호흡을 길게 짧게 되풀이 하며 우리 몸 구석구석 어깨, 가슴, 팔, 다리를 맛사지 하듯 골고루 두드리세요.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가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몸이니까요. 단학인 모두 사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경교불교

12월달 후원회비 내주신분들(12월1일~1월1일)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진철희, 강재수, 공석남, 구광국, 권중서, 김기현, 김말수, 김명옥, 김미월, 김수은, 김순옥, 김영동, 김영희, 김용필, 김은주, 김재숙, 김준옥, 김준호, 김혜자, 두금덕, 민준홍, 박경아, 박상우, 박선현, 박영희, 박정자, 박청용, 배민한, 배정희, 서상열, 서의호, 손용식, 송경주, 송호윤, 심화식, 안영찬, 양정례, 양재홍, 양준영, 어윤식, 오선옥, 윤광숙, 윤영무, 이기순, 이난호, 이남덕, 이대곤, 이민수, 이병일, 이사현, 이상남, 이상범, 이선우, 이수교, 이영옥, 이윤철, 이임성, 이태갑, 이태순, 장명순, 장영남, 장옥훈, 장용집, 정경화, 정무근, 정현숙, 조권형, 조남종, 조명숙, 조성남, 조창윤, 진상범, 진주범, 차용희, 최명길, 최숙련, 최정자, 한영규, 한혜승, 함대식

기본교리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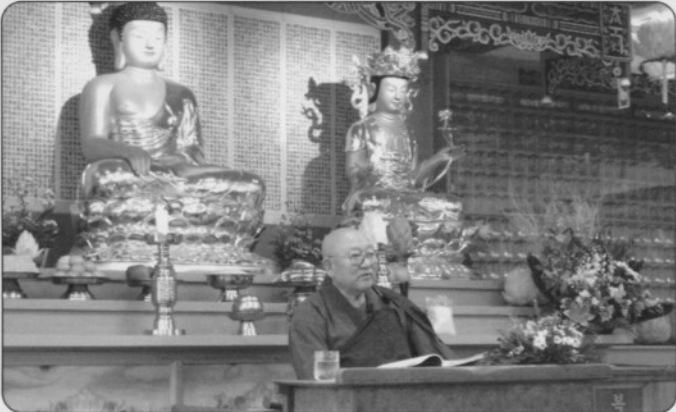
- 개강일: 1월 25일 개강 (매주 수요일 7시)
- 내 용: 불교기초교리, 사찰의 구조 등
- 기간: 3개월
- 수강료: 50,000원
- 강사: 포교사 및 전문법사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 212-0033
H.P 018-313-3838



● 백인에게 듣는다(서른세 번째)



불기2549(2005)년 12월 17일(토) 오후 3시 본원 큰 법당에서 무진장스님의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열린 법회가 있었습니다.

● 12월 사찰답사

12월 사찰답사는 수덕사, 추사고택, 고건축박물관, 천장암이었습니다. 수덕사에서 사시에불을 드리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추사 김정희의 자택과 고건축박물관에서는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따라 찾아간 천장암에서는 경허스님과 만공스님의 넓고 깊은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교육 강좌

▶ 상반기 강좌

경전강좌 가섭스님의 경전강좌가 2월 3일 오후 7시에 개강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필라테스 및 요가강좌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수업을 하오니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기초교리와 다도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7시(다도기초반) 오후 7시(기초교리)에 수업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행사안내

지중해 3국 성지 결망 순례



- 다 음 -

경기불교문화원(원장/진철희)에서는 1월30일~2월21일까지 지중해 3국 (터키, 그리스, 이집트) 성지 결망 순례를 답사원 15명과 함께 실시한다.

● 자선바자회 및 후원자의 밤



▶ 불기2549(2005)년 11월 17일(토) 오후 1시에 자선바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후원자의 밤이 개최되어 2005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불기2550년 성도재일 3000배 입재

경기불교문화원의 2006년새해 시무식은 초발심을 유지해 부처님 닦기 운동 일환으로 1월 6일 오후 9시부터 성도재일 3000배 입재부터 시작되었다.

▶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 날

“제18회 뉴욕 국제 법요식 및 제8회 국제 불교인의 밤 참가단 모집”

일 시 : 2006년 4월 9일~4월18일(9박10일)

일 정 : 인천->뉴욕->롱아일랜드->워싱턴->나이아가라->킹스톤->뉴욕->인천

주요일정 : 롱아일랜드 서태평양바다에 램스터 방생법회 국제 불교인의 밤 참가·워싱턴, 나이아가라, 킹스톤, 뉴욕 관광 국제 봉축 법요식 및 제등 행렬 참가

마감일 : 2월28일(선착순 20명)



▶ 교계소식

종정예하 신년하례법회

10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 총무원장 스님 등 100여명 참석

법전 종정예하에 대한 신년하례법회가 10일 오전 11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된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봉행되는 조계종 신년하례법회에는 총무원장 지관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등스님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등 100여명의 스님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전 종정예하는 신년하례를 받은 후 종도들에게 수행과 정진을 당부하는 신년교시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謹賀新年

경기불교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5년도 동안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2006년 3월~5월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본교리	전문법사	2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25 개강
	위빠사나	이종숙	20명	15주 80,000원	법문, 경행, 좌선, 면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경전강좌	가섭스님	30명	16주 120,000원	금강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2/3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참선법회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미술의 이해	권중서	20명	3개월 90,000원	한국 불교미술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문 화 강 좌	요 가	문명순	20명	3개월 90,000원 (120,000)	생활요가(주2회)	매주 월/수요일 오후 7시	수시
					임산부요가(주2회)	매주 화/금요일 오후 3시30분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전호흡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다도기초	홍인숙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다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필라테스및 요가	이문섭	20명	3개월 90,000원	필라테스(주2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30분	수시
	명리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5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고급)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운세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초급)	수시
	중국어회화	안미영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중국어 회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왕초보영어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수시
	경락	고칠성	20명	3개월 90,000원	한방경락/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초청 강좌	백인에게 듣는다	지묵 스님	100명	무료	성도의 의미	1월 21일 오후 3시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30,000원	법주사, 용화사, 관음사	1월 15일 오전 7시30분 출발	

■회원가입안내

경기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증"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본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중·고·대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 TEL.031-251-1083/ 257-1083 (FAX겸용)